# 길과 법

## (예레미야 5:1-9)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길과 법'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이며 그 길을 가는 법도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답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며 그것을 기록할 정도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80년이란 세월이 지나며 사명이 있기 전에는 그저 양치기였습니다. 그에게 만일 복음을 알고 있는데 사명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어릴 때 젖먹이일 때에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성경말씀이니 대부분 믿고 넘어가기만 합니다. 몇 년 전에 손녀가 8개월되었을 때, 제 딸이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는데 제가 보기에 놀라웠습니다. 8개월인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들고 오라 하면 그 책을 들고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겨우 걷는 시기인데, 그 책을 잘 들고 왔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손자, 손녀 자랑을 했는데, 옆에 이호주 장로님이 세 살 때 천자문을 외웠다고 했습니다. 한자를 1,000개를 써놓고 그것을 다 외웠다는 의미입니다.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이용호 장로님은 딸 송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젖먹이라도 창세기를 다 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살 때 천자문을 장로님이 있으니 모세도 창세기라는 이야기를 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릴 때 그것을 다 외우고 알고 있었음에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언제 인생이 역전할까요? 사명이 들어올 때입니다. 복음이 너무 귀해서 사명을 잠깐 놓쳤을 때도 있습니다. 사명이 들어와야 복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명이 없으면 복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면 인생을 작품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은 복음을 아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건 답이 되고, 저건 답이 안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원죄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으면 인생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는 게 아니고,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됩니다. 근본 이유가 원죄고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계속 흩어지게 속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그 상급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합니다. 사람 살려서 나와 똑같은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통하는 시작은 사명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전에는 복음 알고 그냥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1. 길과 법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상숭배가 아주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고모라 용서하겠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머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에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도 알고 길도 안다고 말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 안에는 멍에 같은 것도 있고, 인간은 누구나 제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법 안에 결박도 있는데 그것은 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사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자 찢기리니.' 자기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유가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법을 버리고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음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법을 잃어버린 결과이니 우리는 길과 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가기 20년 전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길과 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이고 법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법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 율법입니다. 그 안에는 수만가지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마라부터 복음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법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법이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장 큰 법일까요?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37-40에 보면 어떤 율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높은 율법이냐는 질문을 했고, 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5경이고 그 나머지 구약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길과 법의 요약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법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길과 법을 알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빠진 모든 영혼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미움, 원망, 살인은 원죄 이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님이 곧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네 이웃 사랑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내용입니다.

아마 율법사는 못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다 하니 성경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능히 하시기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며 내가 성경이란 것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없이 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불가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따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6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는 성전에서 제사해야 하지만 나는 아니란 것을, 성전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니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나라는 것, 나를 하기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 이 모든 의미를 한 문장에 담으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율법 위에 있다. 율법의 결론은 성전입니다. 희생제사가 율법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말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핵심은 약속의 피제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율법 위에 있고, 내가 희생제사다, 그러니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이 나를 지키며 이것이 율법의 이유이다, 율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는 내용이 '나'다, 나는 율법을 만든 자이고, 나는 모든 율법과 강령이 '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법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저주에서 해방이 우리의 법입니다. 법이란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법적인 약속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저주를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법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뱀의 머리를깨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 또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문을 여는 천국 열쇠도 우리의 법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백을 계속 하고, 언약으로 계속 붙잡으며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언약이 되어지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멍에와 법은 아주 무겁고 어렵습니다.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나를 고백하면 인생을 약속한 그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에 예레미야 통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의 기도제목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인지 나의 육신 기도제목인지 봐야 합니다. 나의 육신 기도제목은 하나님을 시원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고 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내가 길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온 우주, 우주를 넘어서까지 들어있습니다. 모든 기도제목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고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만 해봐도 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단어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바뀌지 않고 반드시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으니 발견되지 않으니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드리러 오는 예배는 다릅니다.

법이란 말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뜻이고, 안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은 가기만 하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누림은 복음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기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언약기도입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하며, 한 마디 기도해도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최고로 영적으로 은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천지개벽 일어나길 바랍니다.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